

## 특허수수료, 안방에서 낸다

지금까지는 특허수수료의 온라인 납부를 일부 은행에서만 할 수 있었으나 지난 달부터는 특허 관련 모든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허청은 2001년 1월부터 특허수수료를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작년의 경우, 특허수수료의 약 22%인 390억원이 온라인으로 납부되었다.

또한 지금까지는 특허수수료를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는 은행이 일부 은행(농협, 신한은행)에 한정되었고, 서면으로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없는 등 불편이 존재했다.

이에 특허청은 지난 달부터 특허수수료 인터넷 납부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실시했다.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작년 11월부터 특허수수료 시스템의 개선을 추진하여 지난 달 성공적으로 개통하게 된 것. 이에 따라 민원인은 시중의 어느 은행을 통해서도 모든 특허수수료를 안방에서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특허수수료 인터넷 납부 서비스의 이용가능 은행이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을 포함하여 25개 전국 시중은행으로 확대되었으며, 아울러 서면제출 서류에 대해서도 온라인 납부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특허수수료 납부체계가 개선됨으로써 민원인은 특허수수료를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되었고, 특허청은 특허수수료의 온라인 납부가 증가됨에 따라 그동안 수수료 납부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오기제에 의한 과오납 등이 크게 줄어들어 관련 행정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허수수료 인터넷 납부 서비스는 지로 사이트(www.giro.or.kr)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을 하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서비스 이용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이다.

## 인터넷 촛불, 특허낸다

주한미군 궤도차량에 치어 숨진 두 여중생과 대구지하철 방화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인터넷 상에서 타오르던 촛불에 대한 특허가 출원된다.

‘인터넷 촛불’은 2001년 1월 호서대 벤처전문대학원에서 벤처경영학을 공부하고 있던 신동욱(35)씨가 발명한 일종의 문화운동으로 신 씨는 자신을 태워 어둠을 밝히는 한 자루의 양초처럼 서로에게 따뜻한 존재가 되자며 자신이 운영하는 ‘캔들러브(www.candlelove.co.kr)’를 통해 이 운동을 시작했다.

네티즌들이 이 사이트를 방문하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양초와 촛불의 크기가 변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큰 호응을 얻기 시작, 여중생 추모 촛불시위와 대구지하철 방화 참사 희생자 추모물결이 번진 최근 3개월 동안 회원이 2만여명이나 늘어났다.

대구지하철 방화 참사 희생자 추모 촛불 온라인 행사에 참여한 김모(29)씨는 ‘집이 서울이라 참사 현장에 갈 수 없어 가슴이 아팠다’며 ‘온라인에서라도 고인과 유가족들에게 힘을 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 여중생 추모를 위한 촛불이 타오르고 있다. 이번 인터넷 촛불의 특허로 인터넷에서도 추모 행렬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신씨는 ‘인터넷 촛불은 다음달 초 ‘인터넷 공간에서 타들어 가는 양초의 구현방법’이란 이름으로 특허를 출원할 계획’이라며 ‘광화문과 대구에서 이어진 추모 행렬처럼 모든 네티즌들과 함께 온라인의 촛불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후불교통카드 특허 문제있다

특허청이 씨엔씨엔터프라이즈와 국민카드가 현재 공동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후불교통카드 시스템’에 대해 ‘특허 취소사유가 있다’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카드업계와 스마트카드 관련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씨엔씨엔터프라이즈(대표 전영삼)은 지난 달 28일 공정공시를 통해, 특허청 특허심사4국은 7개 카드사가 지난 2001년 7월 씨엔씨와 국민카드가 공동소유한 ‘비접촉식무선 인식 신용카드시스템(일명 후불교통카드시스템)’에 대한 특허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결정,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특허청이 7개사의 이의신청(신청번호 10-2001-000126)을 받아들임에 따라 향후 전개될 법적공방 결과에 따라서는 씨엔씨와 국민카드의 후불교통카드 특허권 행사에 지장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씨엔씨는 ‘이번 결정은 단순한 행정절차로서

아직 특허 무효가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사업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특허심판원에 재심을 요청했으며 향후 특허법원,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도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결정은 지난 2001년 말부터 지금까지 카드사들이 씨엔씨와 국민카드에 지불한 막대한 후불교통카드 로열티의 반환논란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이번 특허청의 이의신청 수용만으로 후불교통카드시스템의 특허 무효를 확정지을 수는 없기 때문에 7개 카드사의 로열티지급 의무가 소멸되지는 않는다.

삼성카드 등 7개사는 지난 2000년 7월 후불교통카드 시장 개발을 앞두고 씨엔씨와 국민카드가 특허권에 따른 로열티를 요구하자, 특허청에 이의신청을 냈다.

## 한미은행, 사이버 지점 BM 특허출원

한미은행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은행 사이버지점을 내는 영업방식에 대해 BM(비즈니스모델)특허를 취득해 다른 은행에 비상이 걸렸다.

한미은행은 최근 특허청으로부터 ‘사이버 브랜치뱅크시스템’에 대한 BM특허를 취득했다고 지난 달 1일 밝혔다.

BM특허는 취득자에게 향후 20년간 독점적인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어서 현재 사이버지점을 개설해 운영 중인 다른 은행들은 한미은행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 사이버지점을 폐쇄하거나 일정액의 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 현재 사이버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금융회사는 우리, 신한 등 시중은행과 보험사 등 제2금융권이다.

강대규 한미은행 인터넷뱅크 팀장은 ‘다른 금융회사의 영업행위에 대해 당장은 문제삼을 계획이 없다’며 ‘앞으로 관련시장이 얼마나 성장할 지 모르는 만큼 일단 권리를 취득해 놓은 것이며 추후 취할 조치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된 게 없다’고 말했다.

## 특허심사도 아웃소싱 시대

특허청은 2007년까지 심사처리기간과 심사 물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선행기술조사 아웃소싱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행기술조사 아웃소싱은 1992년부터 실시, 90년대 중반 이후 출원이 급증함에 따라 심사 업무의 부담을 심사관 증원으로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1997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해 온 사업으로 2002년에는 전체 심사물량의 32%인 6만5,000건이었으나 2007년에는 70%인 18만건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웃소싱을 확대하고 계획대로 심사관 500여명을 증원하게 되면 심사처리기간이 지난해 22.6개월이었던 것이 2007년에는 선진국 수준인 12개월로 단축되는 것이며, 심사관 1인당 심사 물량에 있어서도 지난해 342건에서 2007년에는 200건으로 줄어들게 되어 심사관의 심사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심사의 질적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 된다.

선행기술조사 아웃소싱사업은 특허·실용신안출원에 대한 심사업무 중 심사관의 판단을 요하지 아니하는 선행기술조사업무를 외부 전문조사기관에 위탁하여 대행하게 하는 것으로 일본에서는 1989년부터 실시하여 현재 연 14만건 정도 아웃소싱을 하고 있다.

[기사문의]

(사)한국여성발명협회  
(02)2203-9460